

“패배에서 시작된 승리”… 예술로 여는 ‘새벽광장’

5·18 45주년

‘소년이왔다’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4>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지난해부터 26~27일 5·18광장서
오일영령 추모 위한 예술인 연대
‘남아 그 강을..’ 진모영 감독 참여
“대동정신, 광장서 활짝 피어나길”



진모영 감독.

민주광장에서 지난 해 처음 열린 ‘새벽광장’은 그런 예술 활동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함께 새벽을 맞이하며 기념하자는 뜻으로 새롭게 ‘판’을 깬 자리다.

“12·3 비상계엄 직후 광장과 국회로 달려 나온 국민들을 보며 느꼈어요. 거대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5월27일 도청을 지킨 시민군의 용기가 우리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모두가 패배를 직감했던 ‘해방 광주’의 마지막 새벽, 계엄군의 진입을 앞두고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시민군의 뒷모습은 비극적인 최후로 기억됐다. 그러나 그날의 패배는 허울뿐이던 한국 민주주의가 마침내 본 궤도를 찾아 나아가기 시작한 결정적인 승리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한 진모영(55) 감독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예술행사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을 기획하고 이끄는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당시 도청에서 산화한 김동수 열사의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갖은 오명을 벗고, 그 가치와 진실을 서서히 드러내기까지 지난한 세월 동안, 항쟁의 마지막 날이면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수많은 예술인의 처절한 몸짓이 이어져 왔다.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그는 “마당극 배우 지정남씨가 매년 옛 전남도청에서 극을 올린다는 말을 듣고 나가본 적이 있다. 행방불명된 아들을 기다리는 무당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며 “계엄군의 총탄이 쏟아졌던 시각에 맞춰, 수십년간 공연을 열어온 ‘이름 없는 공연팀’의 1인극이 이어졌다. 떠난 이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극과 닦아 깊은 울림을 주는 공연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100인의 릴레이 그림 등 최후의 날을 기리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행위를 지켜보며 더 많은 이가 참여하기를 바랐다”며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날의 시민군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기억하며 광장을 열고, 지키는 일이라 말로 시대를 넘어선 연대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감독은 10일간의 항쟁일지 중 5월 27일이 가진 상징성과 무게를 거듭 되짚었다. 행사명 역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마지막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남긴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에서 착안했다.

그는 “5월27일은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



지난해 5월26~27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에서 한 예술가가 시민군들을 기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윤재경 사진작가 제공

운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 시민들의 움직임 또한, 그날 시민군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행사는 진정한 역사의 승리는 어떻게 해내는 것인지, 승리한 오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가꿔나아가 하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지난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새벽불 순례팀’은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발해 도청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열사들의 넋과 함께 민주광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은 행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자정

무렵에는 ‘놀이패 신명’과 지정남씨가 준 비한 마당극 ‘환생굿’이 기동타격대 동상 앞에서 펼쳐진다. 아울러 오전 4시 ‘침묵의 시간’과 이어지는 ‘부활의 몸짓’, ‘대형 켈리그래피’ 등 어둠을 지나 아침을 여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긴 호흡으로 펼쳐진다. 진 감독은 시민들과 함께한 새벽을 다큐멘터리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매년 항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게 현실”이라며 “오월의 기억들이 역사화 돼가는 현시점에서 송고한 하루를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지자체와 기념재단 등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모금과 소액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참여하는 예술인과 스태프들 또한 자원봉사로 함께한다.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보내온 차와 커피, 주먹밥과 음식은 그날의 ‘대동정신’을 그대로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진모영 감독은 “올해 참가 신청한 ‘광장지기’만 해도 벌써 전국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이는 5·27 최후 항쟁이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정신을 온전히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오월을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대동의 정신, 주먹밥의 정신이 ‘새벽광장’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서 20·40대 연쇄 투약, 집행유예·실형 선고

法,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징역 5년

집단 마약 구입과 주거지 내 투약 등으로 기소된 광주 지역 20~40대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혐의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건설업 종사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한 뒤, 은닉 장소를 지정받아 직접 회수하는 수법으로 총 450만원 상당의 마약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 매수에 그

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C씨는 A·B씨의 권유에 호기심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마약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중 20대 D씨는 지난 2024년 7월 동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30대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세 사람은 한 명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합성대마를 장착해 함께 흡연하고, 엑스터시·케타민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0대 E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마약 투약 사실을 주변에 알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을 저지른 D씨는 법원의 선처 기회를 저버린 점에 비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5·18 국민 인식조사 진행… “은폐·왜곡 등 규명 시급”

기념재단,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응답자 73% “신군부 비자금 환수”

올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은폐·왜곡·조작’에 대한 규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 후 우선적으로 5·18 진실규명과 왜곡 방지, 정신의 헌법 반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18기념재단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5·18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표본오차 ±3.10%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 진행됐다.

이번 인식 조사는 △새정부의 5·18 인식 개선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시민사회가 단기적 시각·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증장가적 관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이라는 3가지 의미로 준비했다.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로는 ‘은폐·왜곡·조작’(3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발포 경위 및 책임(24.2%), 암매장 의혹(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18 진실규명’이

32.8%로 가장 많았고, ‘왜곡과 폄훼 방지’(20.0%), ‘헌법 전문 반영’, ‘민주유공자 예우 및 처우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군부 비자금 환수’ 활동에 대한 국민 공감도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14%, ‘필요하지 않다’는 13%였다. 비자금 환수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으로, 국민 여론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5·18 인지도와 기여도, 이미지 등을 종합 평가한 ‘5·18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철 기자

멸종위기종 1급 황새, 전남 나주서 발견

4마리 새끼 키우는 것으로 파악

멸종위기 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사진)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견됐다.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가 최근 전라남도 나주시 부덕동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황새는 고압 절탑 위에서 4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새는 겨울 철새로 과거에는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텃새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황새는 세계적으로도 3000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요하는 조류이다. 한국은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보호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jnilbo
진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